

사기/기만

Täuschung

1. 어원 및 개념정의

동사 täuschen(속이다)은 중세독일어 tuischen(거짓말을 하다, 거짓 맹세를 하다)에서 유래하는데, 이 단어는 중세네덜란드어 tuschen(사기치다, 바꿔치다)에서 유래. 그 이상의 어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속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모티프 유형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모든 문명권에서 일반적으로 큰 죄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같은 종족의 구성원에 의해서 다른 종족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타종족과의 전쟁에 참여한 전사의 경우, 그가 자신의 종족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으로 간주되어서 장려되고 권장된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한 이는 종족의 영웅으로 추앙되기도 한다. 문학 속에 나오는 영웅이나 전사, 혹은 모험가가 보여주는 지략이나 영리함, 혹은 돌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은 보통 이러한 속임수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의해서 행해진 속임수나 사기는 진리를 사랑하는 미덕이나 성실함만큼이나 가치 있는 행동으로 동화나 전설, 혹은 문학작품의 주요한 모티프이다.

모든 종류의 속임수는 긴장을 수반하며 갈등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속임수가 드러나는 경우 사태는 갑자기 반전을 하게 되며 갈등이 일시에 해결된다. 문학작품 속에서 속임수는 보통 권력이나 재산, 혹은 사랑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인물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러한 경우 선량한 주인공은 곤경에 처하게 되고 사악한 인물은 일시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속임수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는 파멸하게 된다. 속아서 곤경에 빠졌던 주인공은 원 상태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불행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끝나기도 한다(쉴러 『군도』 (1781)).

1) 근친간의 살인 모티프

속임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친척인지 모르고 행하게 되는 근친에 대한 살인 모티프이다. 특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인하는 줄거리는 자주 등장한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부모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다. 하지만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부모를 시험하려는,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한다. 물론 부모의 탐욕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기 때문이다. (칼 필립 모리츠 『손님 블런트』). 이 모티프의 변형된 형태는 몰래 돌아온 아들, 혹은 딸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이다(소포클레스 『엘렉트라』).

2) 부부간의 속임수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결혼 생활에서의 가장 흔한 속임수는 남편이나 부인의 혼외정사이다. 과연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폭로될 때 과연 당사자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인가 등등에 관한 기대와 궁금증 때문에 줄거리는 긴장 속에서 진행된다.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작품의 경우 강조되는 것은 부정한 일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겪는 감정의 혼란, 결혼 상대자에 대한 죄의식이다. 특히 당사자들은 의지가 약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행위가 희극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부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아이헨도르프 『어느 건달의 삶』). 단편소설이나 익살극, 혹은 코메디에서 부인의 부정을 모르고 있는 남편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모습을 지닌다. 반면에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인물은 익살스러우면서도 정부의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교묘하게 꾸밀 수 있는 책략을 지닌 인물인 것이 보통이다. 특히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이러한 인물의 전형이 자주 등장한다.

3) 정형화된 주인공의 유형

민담이나 익살극, 혹은 에로틱한 악동소설에 나오는 속임수에 연관되는 인물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교활한 농부와 순진무구한 청년, 가난한 빗쟁이와 부유한 지주, 영리한 손님과 우둔한 술집주인, 발랄하고 모든 일에 열심인 처녀와 고약한 노인, 안달을 떠는 부인과 무덤덤한 남편 등이 그의 예들이다.

4) 젊은 남자와 부유한 부인

가난하지만 세련된 젊은 남자가 돈 많은 부인을 농락하는 것도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는 돈 많은 부인에게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속임수에 의해서 취한 물질적 이득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처음에는 젊은이가 돈 많은 부인을 속인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젊은이가 이 부인에게 농락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즉 그는 이 부인의 노리게였다는 사실이 마지막에 가서 밝혀진다(하인리히 만 『환락경에서』).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권력에 대한 욕망
	사회의 무관심
	재물에 대한 욕심
	사회의 불평등
	시기심
	완고한 관료제도
	사회제도의 미비함
	가난
	부부간의 불화
	사회 질서에 대한 거부
	호기심
	새로운 애인의 등장
	사업의 실패
	권력투쟁
	질투
과정	이혼
	사기행각
	명예실추
	불안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방랑
	파산
	물질적 어려움
	범죄를 저지른다
결과	자살
	복수의 성취
	집으로 돌아옴
	호기심 충족
	가족의 해체
	감옥에 갇힌다

	결혼
	이혼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콤포닉의 대위 Der Hauptmann von Köpenick』*

작가	칼 추크마이어 Carl Zuckmayer 1896-1977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31
등장인물	<p>포익트: 주인공, 평범한 소시민. 자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우연히 구입한 군복을 입고 대위 행세를 한다.</p> <p>슐레토우: 군복의 주인. 의도하지 않은 싸움에 끼어들면서 제대를 한다.</p> <p>칼레: 포익트의 감방 동료. 전형적인 범죄형.</p> <p>마리: 포익트의 여동생. 프리드리히 호프레히트의 부인.</p> <p>프리드리히 호프레히트: 마리의 남편.</p> <p>아돌프 보름서: 군복 가게의 주인.</p>

4.1. 내용 요약

시간은 1차 세계대전 이전. 1막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2, 3막은 그 10년 후.

1막

포츠담에 있는 보름서의 군복 가게에서 슐레토우 대위가 새 군복을 입어본다. 그는 군복이 몸에 맞지 않자 수선을 부탁하고 군복을 가게에 놓고 나간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가게로 들어오나, 거지로 오인 받아서 쫓겨난다. 그는 서류 위조로 형을 살고나온 구두장이 빌헬름 포익트이다.

그는 전과자이며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하고, 또한 거주 허가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전과자란 오명을 지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본명 대신에 프리드리히 뫼러라고 허위 신고를 한다. 이로 인해서 공문서 위조죄로 또 다시 15달 동안 감옥에 갇힌다. 석방 후에 포익트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체류허가를 요청한다. 그러나 체류허가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경찰관이 설명하자 포익트는 다음과

* 윤도중(역): 콤포닉의 대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년.

같이 한탄한다.

“세상은 요상한 회전바퀴입니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또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외국으로 나가려하지만 비자를 얻을 수 없다. 그의 고향 시청에서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20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호적이 지워진 상태다.

포익트는 커피숍에서 우연히 감옥 동료인 칼레를 만난다. 그는 포익트에게 범행을 부추긴다. 술래토우 대위도 군인에게 금지된 평상복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의사와 당구를 치고 있다. 술 취한 군인이 포익트의 감옥동료와 격투를 벌이자 술래토우가 끼어든다. 술 취한 군인과 함께 그도 경찰에 연행된다. 술래토우는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예편되어 보름서에게 주문했던 군복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포익트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 한 번 시도하지만 전과자라는 경력 때문에 다시 실패한다.

포익트는 칼레와 포츠담 경찰을 습격할 것을 모의한다. 얼마 후 보름서는 그의 가게에서 경찰을 습격한 사건과 두 명의 전과자들이 잡혔다는 기사를 읽는다. 지방 말단 공무원인 오버뮐러가 술래토우의 제복을 사간다.

2막

경찰을 습격한 죄로 포익트는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낸다. 석방되자 포익트는 지역관리인 호프레히트와 결혼한 여동생을 찾아간다. 오버뮐러는 그 동안에 쿠페닉의 시장이 된다. 술래토우의 낡은 제복이 더 이상 맞지 않자 그는 새 제복을 주문한다. 보름서는 그에게 새 제복을 가져다주고 낡은 제복을 받아온다. 포익트는 추방되지 않기 위해 경찰에 거주 허가 신고를 하러간다.



<쿠페닉의 대위 기념상>

경찰서에서 한 장교가 경찰 업무를 방해하여 포익트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다. 그의 여동생 집에서 포익트는 폐병을 심하게 앓는 세든 소녀를 정성껏 돌본다. 그가 그녀를 위해 『브레멘 악대』를 읽어주는 사이 거주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이 떨어진다. 그는 48시간 이내에 릭스도르프를 떠나야 한다. 소녀에게 동화를 계속 읽어줘야 한다는 이유로 그는 추방 명령을 거부한다.

군대 파티에서 보름서의 딸이 제복을 입고 애국적인 노래를 부른다.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제복이 샴페인에 더럽혀진다. 이제 제복은 벼룩시장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다. 호프레히트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진급을 하지 못한다. 포익트는 규정의 부당함에 흥분한다. 호프레히트는 그러나 아무리 법이 부당해도 그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포익트가 추방되는 것도 그는 적법하다고 인정한다.

3막

장사꾼의 손에 들어간 슐레토우의 제복을 포이트가 다른 장비와 함께 구입한다. 쉴레지아 역에서 포이트는 제복을 입고 대위로 변장한다. 그가 나타나자 역공무원이 차렷 자세로 인사한다. 포이트 대위는 마침 지나가는 군인들을 소집하여 쿠페닉 시청을 장악한다. 그리고 시장인 오버뮐러를 체포한 후 시 금고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얻으려 했던 여권은 손에 넣지 못한다. 포이트는 횡령한 돈을 챙겨 은신한다.

베를린은 익명의 가짜 대위에 대한 소문으로 술렁거린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다. 2주일 후 포이트가 경찰서에 나타난다. 여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포이트는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한다. 그러나 여권을 얻으려는 포이트의 행동은 실패로 돌아간다. 쿠페닉에는 여권을 만드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포이트는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거울에 비친 대위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칭
- 서사구조: 포이트는 우연히 갖게 된 대위 군복을 입고 대위행세를 한다. 단순한 제복/유니폼이 권력의 상징으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원인	완고한 관료제도 사회의 무관심 사회의 불평등 사회제도의 미비함
과정	사기행각 불안한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범죄를 저지른다
결과	감옥에 갇힌다

5. 작품 목록

모리츠 Karl Philipp Moritz: 『손님 블런트 Blunt oder der Gast』 (1780)

쉴러 Friedrich Schiller: 『군도 Die Räuber』 (1781)

클라이스트 Heinrich v. Kleist: 『깨어진 항아리 Der zerbrochene Krug』 (1806)

아이헨도르프 Josef Freiherr v. Eichendorf: 『어느 건달의 삶 Aus dem Leben eines Taugenichts』 (1826)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 『해리 모피 Der Biberpelz』 (1893)

카이저 Georg Kaiser: 『유대인 과부 Die jüdische Witwe』 (1911)

만 Heinrich Mann: 『환락경에서 Im Schlaraffenland』 (1900)

6. 연계 모티프

돈, 살인, 경쟁, 도박, 의심, 사랑, 권력, 파산, 결혼, 변장, 탐욕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 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사기 + 결혼 + 신분상승
스토리	가난하고 아무런 학벌도 없는 청년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서 원하던 부유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신분상승을 이룬다.